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4호 2015(407~430)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과 점화 효과: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오인혜*

The Heterotopiatic Placeness of North Korea and a Priming Effect: The Case of The Korean-American

In-Hye Oh*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한 측면으로 점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에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교포들은 북한의 이중적 장소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노스탤지어와 전시도시로서 평양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한민족 공간이자 폐쇄적 독재국가이며,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공간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계급공간으로서 평양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갖는다. 민족의 명산이지만 한국 관광객 총살사고가 일어난 금강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교가 뛰어나지만 인권유린으로 이루어진 아리랑 공연,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 꽃'시의 배경인 동시에 핵시설로 세계에 알려진 영변이 갖는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점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은 뚜렷한 점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체제 선전을 위한 인문 경관인 아리랑 공연은 호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극단적인 장소성을 갖는 영변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점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면적 장소성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강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북한, 장소성, 점화효과, 재미교포, 헤테로토피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double faced heterotopiatic placeness of North Korea which can be highlighted to one aspect through priming test. Korean-Americans are found to have a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closed society where political leader cult is practiced, Pyongyang as a display city. They have Christian nostalgia toward it as a place where Christianity was first introduced to. North Korea's heterotopiatic placeness is sharing the 5,0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 peninsula on the one hand and being a closed dictatorship place on the other. North Korea is kept isolated and closed but has had a liminal space through the intentional open system like special economic zone. Pyongyang is the city for specific class where it shows the heterotopiatic character. Priming is found effective in Yeongbyun, a place of extreme mixtures placeness as being the hometown of the beloved Korean poet Kim So-Wol and the site of nuclear weapon experiment but Korean-Americans have not found any priming effect regarding the Geumgang mountain tour. As to the Arirang performance, a man-made landscape expressing North Korea's sense of value and ideology, priming resulted in preference. This study raises the needs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 as a multifaced placeness and it can purposely be emphasized and changed to contribute the two Korea's unification.

Key Words : North Korea, placeness, priming effect, Korea-American, heterotopia

---

본 연구는 오인혜(2013)의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논문화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i05@snu.ac.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통일은 분단이 시작된 이후 줄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타산을 초월해 우리민족이 이루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통일은 그 당위성만큼이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하며 그 가운데 남북한 이질감 해소는 통일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 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을 각각의 '장소 집합'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다양한 지역의 장소성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즉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북부지역으로서의 북한의 다양한 장소들, 예컨대 역사수도로서의 평양이나 개성의 장소성을 발굴하고 부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장소란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인지적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의미있는 공간을 말한다.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대상인 동시에 전시중인 주적이라는 모순을 갖고 있으며, 반만년의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70년 가까이 편지나 전화 왕래조차 불가능한 매우 상이한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갖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북한(North Korea)'이라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은 국가라는 차원은 차치하고 한국과 세계에 하나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상징도시인 평양은 고구려의 역사수도이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고려의 아름답고 활기찼던 역사수도 개성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폐쇄정책과 3대 세습을 통한 우상화로 전혀 다른 장소성을 갖으며 이 둘은 경합하고 있다.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그리곤 하지만 실제 남북한은 철저히 분단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역사와 단절된 것처럼 인식되고 역사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평양이나 개성은 북한과 전혀 별개의 기억 속의 장소로 여겨진다. 이러한 북한의 다중적인 장소성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장소로서의 북한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 북한이라는 곳 자체가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개인, 단체, 국가), 시기에 따라(평화, 갈등·긴장 상태), 대상(주민, 정권, 여성, 아동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장소인식 또한 다양한 경험, 예컨대 미디어, 반공교육 및 배경지식, 직접 방문경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입국제한과 신변의 위협 등의 이유로 쉽게 방문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언론의 방향, 재현된 사건 등에 따라 이미지나 느낌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Heterotopiatic placeness)과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성 점화(priming)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헤테로토피아(hétéropie)는 푸코(Foucault)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로 대략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허경, 2011).[1] 이 용어는 직역하면 '중첩된 장소'라는 의미이며 실재하는 물리적 3차원 공간이면서 주관적 의미 부여가 함께 투영된 공간이다(인성기, 2015).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의 핵심 개념은 '차이 만들기(make difference)'가 중점을 이룬다(Johnson, 2013). 그러나 사실상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체계적이거나 명료하지 않고 단편적이면서 다소 모호하다. 그런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간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과 접목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정상준, 2015).[2] 본 연구에서는 '장소로서의 북한'을 '적'이면서 '형제'이고 '타자'면서 '우리'이며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면에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남한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철저히 분단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점화를 통해 긍정적 측면(utopia) 혹은 부정적 측면(dystopia) 중 한쪽 면을 의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점화란 개인과 사회에 두 가지 속성이 혼재되어 있을 때 한 가지 속성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Nisbett, 2003). 즉 점화 실험을 통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양분화된 장소성 가운데 한 측면을 강화한 후 장소에 대한 호감과 태도가 의도한 대로 변화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영변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위험 장소인 동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김소월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변의 약산은 '진달래꽃' 시의 배경이 되는 몽환적 장소이다. 점화 실험은 이처럼 중첩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와 관련된 단어나 사진, 신문기사 등을 연구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한쪽 면을 강화시켜 그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은 재미교포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이나 평양종합병원 등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북한인권운동과 대북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주류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어 북한 장소성에 대한 점화효과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소로서 '북한'이 갖는 한민족 공간이자 적국이라는 이중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규명하고, 사회심리학적 점화실험을 통해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성의 점화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점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한민족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부각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남한사회의 우월감이나 북한사람들의 이등 국민 의식 등, 남북한 간의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즉 북한에 존재하는 한반도 문화·역사 유산, 수려한 자연 경관 등에 기반을 둔 장소성을 발굴하는 것은 남북한 분단 이전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가 북한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장소성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필연적으로 북한에 대한 견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되는 남남갈등을 해소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문헌 연구

1)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이미지

북한의 중첩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모순성과 혼존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점화를 통해 변화가능성을 갖는 북한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대한 연구이며 끝으로 통일준비차원에서 이중적인 통일의식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른 통일의식의 변화를 밝히는 연구이다.

먼저 국가이미지에 대한 모순성과 혼존성에 대한 연구로 이우승(2000)은 정상회담보도에 나타난 북한과 김정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국가이미지를 적대/온건, 비합리/합리, 이질/동질, 비도덕/도덕, 가난/풍요, 열등/우월, 강경/온건, 폐쇄/개방, 다면성/일면성의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3] 분석결과 정상회담보도에서는 긍정적 이미지(우호, 합리, 동질, 도덕, 우월, 온건, 개방, 일면)가 높게 나타났지만 가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또한 높게 나타났다. 김정일 관련 뉴스보도의 논조도 전면적으로 긍정적(68%)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정상회담과 같은 이슈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 이우승과 영선(2006)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관련 방송보도태도를 살펴보고 북한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신화적 가치에 관심을 둔 레비스트로스의 이항 대립적 관점과 롤랑바르트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북한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의 순으로 보도 빈도를 보였고 북한의 모습과 이미지가 단편적이고 왜곡적일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 북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항목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2001년 이후 북한관련 사건이 갖는 성격에 따라 부정과 긍정이 각각 교차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김택환, 2000). 동시에 1997년에는 정치 분야에서 보다 감정적 언어 사용을 통해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고, 2000년 이후에는 감정적 표현을 억제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았다. 이우승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긍정과 부정이라는 대립적인 이항구조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변칙 범주로 다루고 있다.

김태현 외(2003)는 국제정치학의 국가이미지 이론

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신념(belief) 혹은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실시했다. 즉 한국인들을 대북관에 따라서 '보통사람들', '현실주의자', '민족주의자', '냉소주의자'로 분류해서 그들이 북한을 동포/형제의 이미지와 적의 이미지로 각각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요인과 학력요인과는 상관성이 높았지만 지역요인, 소득요인, 이념요인과는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우승과 영선(200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대북정책 지지도는 일견 무질서해 보이지만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적 신념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박명규와 이상신(2011)은 이미지를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주관적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로 바라보고자 했다.[4] 오늘날 북한의 명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은 우리사회가 북한을 바라볼 때 이데올로기적 해석과 체제대립의 관점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보다 종합적 관점인 '주관적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로 접근할 때 북한에 대해 보다 적절한 해석과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 점화 가능성이 높은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며, 우리 자신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Fajardo, 1985; Sagar & Schofield, 1980).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성격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는 믿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합당한 근거가 없이 통념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너그럽다'는 고정관념을 매개로 형성된 인상 등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왜곡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어떤 집단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편견(prejudice)이라고 한다(김정희 등,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전우영(1998)은 한국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밝혔는데, 이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의 지배층과 매우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국가로서의 북한의 성격특성을 독립적인, 공격적인, 지배적인, 야심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와 상대적으로 북한의 피지배층은 동일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가정적인, 정직한, 희생적인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들을 성격특성으로 보았다. 전우영의 연구는 국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고정관념이 국가와 국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우일과 유영옥(1993)은 한국의 정권

표 1. 북한에 대한 상징적 은유와 인식

시대/구분		북한에 대한 상징적 은유	북한에 대한 인식
1공화국		빨갱이 집단, 침략자, 적	체제부정, 수복통일의 대상
2공화국		〃	〃
3공화국		〃	〃
4공화국		살인마, 전쟁광, 테러집단	실체인정, 대화협상의 대상
5공화국		〃	〃
6공화국	노태우정부	동족, 한민족, 민족공동체	공동 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
	김영삼정부	한민족, 국제질서왜곡, 불신	일탈행위 제재와 강경 대응 필요
	김대중정부	한민족, 민족공동체	화해, 협력, 포용할 대상
	노무현정부	〃	평화, 번영, 실천의 대상
	이명박정부	한민족, 상호주의·호혜 대상	상생, 공영, 경계의 대상
	박근혜정부	한민족, 선택권이 있는 대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상, 원칙주의 대응

출처: 권우일·유영옥(1993), 이헌경(2010), 황지환(2011)을 참조하여 재구성

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징적 은유와 인식이 변화했음을 밝힌 바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헤테로토피아적 이미지 연구는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중적인 통일의식 및 탈북자에 대한 인식차이와 연계된 통일의식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김병로와 최경희(2012)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통일 필요성과 기대감, 남북한 상호인식, 문화적 차이와 인지도, 남북교류정책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은 서로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상호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 협력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적대/경계 대상으로 바라보는 양면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안득기(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 의식을 분석하였는데 '북한'하면 연상하는 이미지로 김정일, 김일성(38.9%), 공산주의(34.7%), 굶주림과 기아(16.8%), 한민족(6.3%), 금강산, 백두산(1.2%), 기타(2.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 등 지도층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대상'(57.2%), '안보를 위협하는 적'(36.4%) 등 부정적인 생각이 다수를 이루었다. 조사결과에서 대학생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크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북한 이미지에 대한 간접적 연구로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통일의식과 연계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탈북자를 '우리(we)'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탈북자들에 대해 보다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과 수용 압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다름을 보여준다(이은혜 · 한성열, 2006).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는 탈북자들과의 접촉경험에 따라 인지와 정서, 신뢰와 수용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송경재 등(2004)에 의하면 공감 능력 가운데 '관점취하기(이해와 수용)'와 '공감적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해 긍정적 정서 평가(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 만하다, 좋다)를 했다. 또한 탈북자와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이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은 탈북자에 대해 단순히 '불쌍하고 슬프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자를 이해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공감능력과 접촉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북한사람을 이해하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데 보다 거부감이 적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대응(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다변적으로 일어나는 북한관련 이슈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언론의 방향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대북 태도 및 행동 변화로 연계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성 점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향후 통일 준비 과정에서 북한을 통일의 당사자로서 이해하고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지리학적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장소성과 점화 연구

공간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Relph(1976)는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오한 중심으로 보았고, Cohen(1982)은 장소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존재의 특성을 인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곳'이라고 간주하였다. Tuan(1976)은 장소란 정서(felt) 가치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사람들의 경험과 열망의 핵심이라 명명했다. Tuan(1977)은 계속해서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소란 역사성과 고유성을 갖는 실체로서 일대기를 갖으며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이 인생행로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된 정적인 것이 아닌 과정이라 할 수 있다(Samuels, 1978; Parmelee, 1992). Relph(1976)는 장소 개념을 현대도시사회의 대량생산문명에 적용시켰으며 도시

일상경관의 무장소적 특성인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개념이 캐나다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별히 산업사회의 물리적 경관이 가지는 장소의 비진정성(inauthenticity)을 비판했는데 그는 대중매체, 대중문화, 대기업, 중앙권력에 의해 주입되는 장소정체성이 무장소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간주관성(사회적 상호작용, 사회화)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진정성 있는 장소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장소는 개인의 경험세계를 기초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원자화된 주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김덕현 외 역, 2005). 공간 그 자체는 애초에 주어진 것일지라도, 공간조직, 용도, 의미는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변화되는,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Paasi, 1986). 장소의 상징적 의미, 물리적 실체, 사회적 구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장소는 가치가 내재된 공간 또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Foucault(1986)는 장소를 사람들과 사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권력이 편재되는 하나의 현장(site)으로 묘사했다. 즉 사람들은 서로 환원할 수 없고, 절대로 포갤 수 없는 현장들을 묘사하는 일련의 관계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특정한 맥락(context)과 국면(conjunction)에 따라 사회적으로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각 주체들의 장소인식과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oja, 1995). 장소는 장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사회·공간적 실천행위가 경합하는 현장으로서 이미 형성된 하나의 장소는 그것을 전유하는 주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조정한다(김효섭, 2005).

공간의 사회적 생산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장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지에 관한 연구는 Thrift(1983), Pred(1983), Taylor(1991), Entrikin(1991, 1996), Murphy(1991), Massey(1995), Sacr(1997), Allen *et al.*(1998), MacLeod(1998)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harles(2008)는 장소란 복잡한 교차로(crossroad)이며, 정지된 경관 안에 고립되어있는 지역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생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궤도와 마주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소란 역동적인 구조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회적, 물리적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장소를 이해할 때 공간적 구획, 사회적 관계, 장소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Butz and Eyles, 1997).

이러한 장소성은 결국 제시되고 만들어진 어떠한 경관과 연계되며 마을 축제나 랜드 마크(land mark) 제작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백선혜, 2004). 결국 장소성은 점화에 의해 특정한 면이 부각되고 혹은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점화 실험은 어떠한 속성을 강화시키고 난 후에 태도나 행동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회심리학은 다양한 사회장면 속에서의 개체의 반응 즉 사회행동 또는 그것의 심리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사회행동을 결정짓는 요인들로서 유전적 요인, 성격적 요인, 과거 경험, 현재의 사회장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심리학은 현재의 상황(here and now)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중시하며 현상적 세계(phenomenological world)를 강조한다. 또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회행동에 관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되고 또 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가, 또는 이와 반대로 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행동의 시작을 사회개념(social perception)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김정희 외, 1997). Hewitt(1991)는 지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사회심리학적 개념의 정체성, 사회적 삶 안에서 개인의 위치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상징적 상호행동주의와 정체성은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서 타인의 기대에 의해 학습된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심리학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즉 지리학에서의 장소에 대한 논의와 사회심리학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Burke, 1980; Osgood *et al.*, 1957).

Stedman(2002)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인식과 태도, 정체성을 통한 행위의 예측에 대한 연구를 장소의 사회심리학에 도입하고자 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점화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김남희와 전우영(2014)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제시된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보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도시 개념이 점화된 참여자들이 시골 개념이 점화된 참여자들보다 자극인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특히, 도시 개념의 점화는 평가대상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 연구는 도시와 시골의 장소성과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이 연계됨을 시사 한다는 점에서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결국 북한에 대한 장소성도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외에 사회심리학적 점화 연구로 Landau *et al.*(2004)은 시험(exam), 죽음(mortality), 테러(terrorism) 세 가지 점화 조건(priming condition)을 주고 난 후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죽음이나 불안한 환경에 처할수록 카리스마적 리더를 지지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Morris and Peng(1994)은 동양인이면서 서양의 문화적 · 언어적 영향을 받은 홍콩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 동양적, 서양적으로 점화한 후 사고의 변화를 밝혔다.[6] 이와 유사하게 Peng and Knowles(2002)는 동양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동양식 자기 개념 점화를 했을 때 동양적으로 행동하고, 서양식 자기 개념 점화를 했을 때 서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7]

점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 전우영 등(2012)은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이 도움개념 활성화와 실제 도움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 유명인을 식역하로 점화했을 때 도움과 관련된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고 실제 기부행동을 증가시킴을 밝혔다. 이것은 점화를 통해 실제 기부라는 긍정적 행동을 유도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점화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중요한 도구가 됨을 뒷받침한다. 신홍임과 김민식(2012)은 사랑의 점화에 따라 전체와 부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짐을 밝혔고, 김비아 등(2012)은 문화성향의 점화에 관계없이 장면을 지각할 때 갖는 개인의 의도에 따라 전경과 배경에 할당하는 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식 등(2008)은 한국과 미국에서 실시한 두 개의 실험에서 단어재인과제를 통해 점화된 문화 조건에 따라 자기평가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점화를 통해 도입된 상황적인 문화가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한 집단' 범주의 의식적, 무의식적 활성화가 북한사람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호의적 감정과 특질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집단 간 편견 감소의 한 방안으로 제안한 재범주화를 통해 외집단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이 논문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사람에 대해 보다 호의적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현실적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의 점화와 다른 범주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한 점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윤정과 전병호(2007)는 남성 중심적 제품의 광고에 여성 중심의 환경이나 여건 등의 장면을 노출하는 점화효과를 통해 여성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신인영(2012)은 미디어의 스캔들 보도가 후보자 선택 기준을 변화시키는 점화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별히 미디어 이용형태에 따라 대통령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점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오미영(2008)은 폭력적 말하기 현상에 있어서 미디어의 효과 측면을 논의하였는데 생각과 감정, 행동 경향 등을 포괄하는 집합체로서의 기억이 관념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물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이 점화 효과를 이끌어 낸다고 보았다. 송현주(2006)는 뉴스매체가 특정한 정책 이슈를 강조 보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점화 효과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 접근가능성 편향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뉴스매체에 의해 강조된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점화 효과의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감정요인이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반현 등(2004)은 선거과정에서 작용하는 미디어의 점화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V뉴스에서 강조된 선거 이슈의 현저성은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후보자나 정당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특정 선거 이슈를 의제로 설정하고 점화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 사회심리학과 미디어·언론학을 중심으로 점화에 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장소성을 점화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소성은 제시된 경관에 영향을 받으며 북한의 경관에 내재된 우상화 작업은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경관은 특정한 장소의 장소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경관은 일상에 대한 시각적 맥락이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혹은 차창을 통해서 응시하는 광경이라 할 수 있다(Relph, 1987). 즉 일차적으로 개인의 눈을 통해 인식되고 주체의 선택적인 시각적 인지과정과 기억의 선택을 통해 재인식된다. 이러한 경관은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진정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재현된다(김재완, 2005). 경관은 고정적인 것뿐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이동하는 것도 경관에 포함되며 관찰자의 태도에 따라 경관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이정만, 2002). 따라서 남북한이 단절된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장소성은 사실상 북한이 보여주기 원하는, 가시 가능한 경관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종 재미교포나 외국인 선교사들이 억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꽃제비를 촬영했다든지 열악한 환경을 외부 세계로 유포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경관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장소성을 형성하기 원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관이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 억압적 행태를 통해 유출을 방어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과정에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북한의 장소성의 발굴이며 한반도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부각함으로써 분단 이전의 장소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본 논문은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일정 방향으로 점화한 후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체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금강산 관광, 아리랑 공연, 김소월의 고향이자 핵개발 지역이라는 영변의 이중적 장소성을 각각 한 측면을 강화한 이후 점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미교포 18

표 2. 재미교포 방북 경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방북 경험자		
	평균	응답자수	표준편차
연령	50대	18	1.37
미국거주기간	26.3년	18	11.07
한국학력*	4.61	18	1.72
미국학력**	5.50	10	0.70
경제적수준***	3.36	14	1.69

자료: 설문조사(집단 간 평균비교)
*4=2년제 대학, 5=4년제 대학(이민 1.5세를 포함한 평균), 6=대학원 이상
**3=$40,000 이상~60,000 미만, 4=$60,000 이상~80,000 미만

명의 사회 ·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미국 거주기간이 평균 26.3년이며 미국에서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으로 고학력인 것, 북한 방문 시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미교포 집단의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70%가 한국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북한이 고향인 경우는 11.11%이며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인 경우는 38.88%이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분이며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한 182명의 재미교포 가운데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18명과 실험 대상자 20명에 대한 연구로 제한하였다. 방북 경험이 없는 설문대상자의 고향과 그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인 경우가 각각 7.40%, 21.11%인 것에 비해 방북경험이 있는 재미교포와 그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인 비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상자 자체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고국방문단 등에 소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방문한 기저에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고향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과 지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이은숙, 2004).

점화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리학 용어로 두 가지 속성이 존재 할 때 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자극을 통해 장소성을 강화시키고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실험방법을 활용하였다. 실험 대상은 연구자가 미국에서 참여 관찰했던 S한인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북한 관련 모임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다. 북한에 대해 기초적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교적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고 점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실험대상의 구체적인 사회 · 인구학적 배경은 표 4

표 3. 방북 경험자의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한국			미국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없음	공화당	민주당	없음
한국 지지정당	10%	20%	70%	46.15%	30.76%	23.09%
고향	북한			그 외 지역		
본인	11.11%			88.89%		
아버지	38.88%			61.12%		

자료: 설문조사(유효 퍼센트)

표 4. 실험 대상의 사회 · 인구학적 배경

Focus Group	북한 관심 초기, 비정기적으로 모임 참석	
	남	여
30대	5	8
40대	1	1
50대	2	2
60대	1	0
전체	9	11
직업	경찰, 교회전도사, 노동직, 디자이너, 박사급연구원 트럭운전, 회사원(건축), 회사원(전기), 회사원(한국계)	NGO직원, 가정주부(3명), 간호사, 노동직, 디자이너, 미술학원운영, 서비스직, 취업준비생, 학생
평균 거주기간	15.6년	

자료: 실험

와 같다.

실험대상 20명은 각각 실향민, 북한 직접 방문 경험자, 이민 1세와 1.5세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후속연구로서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점화 실험을 실시한다면 사회·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북한의 장소를 선택한 후에 의도된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한 일정한 방향으로의 점화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점화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순적이며 대립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두 가지의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북한의 대표적 사례로 금강산 관광과 평양의 아리랑공연, 영변을 선택하였다. 먼저 금강산 관광은 아름다운 민족의 명산이자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신변의 위험이 내재된 곳이라는 이중성이 존재한다.[8] 평양의 아리랑 공연은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는 긍정적 의미와 동시에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측면 및 체제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영변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 하나인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꽃' 시의 배경이 되는 몽환적인 곳이다. 또한 관서팔경의 하나로 예부터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북한 핵실험의 대표지역이며 방사능 오염이 매우 심각한 부정적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

실험방법과 일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금강산과 아리랑 공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내용을 제시하고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조사하였다. 일정 기간 후 다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실험지를 제시하고 동일한 질문을 조사하였다.
- 영변에 대해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긍정적 특성을 제시하고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조사하였다. 일정기간 후 핵 시설 개발 지역으로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제시해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 이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장소성의 점화에 의한 태도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 실험은 2012년 3월 25일과 2012년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LA에 소재한 S교회에서 진행하였으며, 긍정적 장소성 점화 실험 후 부정적 장소성 실험까지 약 두 달 반인 77일의 간격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 실험을 통해 특정 장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기사와 칼럼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의 민족적,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의 기사와 반대로 위협적,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기사를 제시하여 각 방향으로 점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어떤 지역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변화 시키는 요인(Image Change Agents)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브로셔, 광고게시판과 같이 공개적으로 유도하는 경우(Overt Induced), 관계자 추천과 같이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Covert Induced), 그리고 뉴스나 대중문화와 같이 주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인(Autonomous)인 뉴스, 기사, 대중문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발적 동인인 뉴스, 기사, 대중문화 등은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

표 5. 점화 실험을 위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가진 북한의 대표 장소

Fact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
금강산 관광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민족 명산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진 곳 관광객 사망 등 신변의 위험 내재
아리랑 공연	세계적 카드 섹션, 문화공연	체제유지 수단, 청소년 인권 유린
영변	김소월의 고향, 관서팔경의 하나,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곳, '진달래꽃'의 배경	핵실험 지역, 방사능 오염 지역

다. 끝으로 유기적 동인(Organic)인 실제 방문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신뢰도가 높은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은, 2007).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실험지를 구성하였다.[9)]

4.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

북한에 대한 공간인식에 있어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장소의 집합으로서 '북한'이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혼존 공간성, 즉 두 가지의 공간성을 동시에 소유하며, 소위 말하는 주류 공간과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보다 구체화한 Soja(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북한은 과거 한민족 공간이라는 특성과 현재 폐쇄적 독재국가로서의 특성이 공존한다. 북한의 도시와 문화유산은 한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주체사상과 우상화의 재현 공간이다. 고구려의 남쪽 수도였던 옛 평양과 북한의 평양공화국, 해상무역의 도시이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오늘날 남북경협의 장소인 개성공단이 소재한 개성, 진달래가 만발하는 김소월의 고향 영변과 핵 시설 개발지역인 영변은 동일한 장소에 공존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도 인정해야 할 주권 국가인지 괴뢰집단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에도 혼존 공간성이 내포된다.

대북지원 활동가들은 혼존 공간성과 북한에 내재된 대립이항적인 가치체계를 인정하면서 다각적인 활동과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지원에 대한 긍정과 부정, 체제 인정에 대한 긍정과 부정, 대북지원과 탈북지원의 양립성, 한민족공간이자 타문화공간인 다중적 장소특성에 따라 활동 방향을 정하고 때론 변화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문정임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 및 탈북자에 대한 민간 지원에서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북한을 지원할 때는 민간단체와 정부(정치적)의 접근, 두 가지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 되도록 많은 서방세계가 들어 가야한다. 외부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내가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싫어한다. 안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드나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북지원은 결국 본토지원으로 교류차원에서 필요하다. 탈북자 지원은 탈북지원으로 결국 본토지원과 대치된다. 탈북자를 지원하면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위험하고 북한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지원에 있어서)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 (LA 탈북자 교회, 문정임 목사 인터뷰)

둘째, 북한의 공간은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며 감시의 기능을 중요시하지만 외부와 소통하고 의도적으로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 공간(liminal space)을 둠으로써 외부(external) 공간과 연계하는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갖는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 이전을 통제하지만 제한적으로 평양, 나진·선봉, 개성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 형성을 묵인하는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셋째, 특정계급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갖는다. 예컨대 평양은 웅장하고 입체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양에 거주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이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미교포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을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양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 북한의 폐쇄적 공간성

폐쇄성(closedness)은 북한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철저한 폐쇄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 유입에 의한 체제 유지의 불안함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

없이도 살 수 있다', '무릎 꿇고 살기 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할 만큼 남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철저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차종환 외, 2008). 반면 상대적으로 재미교포에 대해서는 '관광을 적극 환영 한다'든지 '많이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철저한 폐쇄정책은 재미교포의 북한 지원 활동에 제한요소인 동시에 북한사회에 끼칠 파급력이 크다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을 50회 이상 방문한 재미교포 김대평 목사의 경우도 북한 내부를 차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 심양이나 북경으로 간 이후에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연변으로 나와서 나진·선봉으로 간다. 북한 내부를 차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VOWE 선교회 대표 김대평 목사, 인터뷰)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은 LA의 ○○○ 목사의 경우도 북한은 극단적으로 폐쇄된 곳으로 인간이 UFO나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통해 북한지원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나진·선봉 지역이 91년도 개방하고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다. 밤에 불이 들어오는 곳이 없다. 아직도 연변에서 나진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다. 쏟아 놓은 돈에 비해 변화가 없다. 화가 난다. 북한을 방문해봐야 뻔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다…북한은 단절된 곳에서 인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폐쇄된 곳에서 인간은 UFO가 아니면 짐승이 된다. 노예근성이 생기고, 고맙다는 말을 모른다.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때로는 자기들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도움을 받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입장이다…북한이 개방되려면 개방 이후를 감당할 북한 자체 힘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과거역사가 깨끗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지도부가 개방을 선택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향후 북한은 개방의 길을 가거나 붕괴되거나 통일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재미교포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북한에 관심이 크다. 관심이 크지만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그렇다할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북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 지도부이고 일반사람은 아니다." (LA ○○○ 목사, 인터뷰)

Penny 선교회 대표 ○○○ 선교사의 편지에서도 북한 내 교통의 불편함, 이동 제한에 대한 체험 등 북한의 폐쇄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일주일 걸린다. 가고 서다를 반복하고 전기가 들어오면 달려가고 전기가 멈추면 기차도 멈춘다. 당간부는 평양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가 멈추면 음식을 사먹고 숙박소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가지만 일반인은 그냥 차 안이나 찻길에서 잔다. 이마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인민들의 이동을 막았다. 호적을 정리한다고 인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장마당을 찾아다니는 그마저도 차단하였다. 만약 다른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가려면 당에 뇌물을 주고 표를 사야한다."[11] (Penny 선교회 대표 ○○○ 선교사 편지 발췌)

미국에 최초 탈북자 교회를 세운 문정임 목사도 북한의 폐쇄성과 그에 따른 북한 주민의 수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다. 다른 도(도시, 동네)로 이동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취적인 것이 없다. 학교, 의료, 식량, 옷이 모두 공짜다. 다 제공되니 꿈이 없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폐쇄성이 크고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꿈과 비전도 없어졌다." (LA 탈북자 교회 문정임 목사, 인터뷰)

이러한 북한의 폐쇄적 공간성에 대한 경험은 대북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 재미교포사회의 참여 부족, 대북 NGO들의 좌절 등으로 연계된다.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18명의 재미교포 가운데 12명의 응답자(66.67%)가 북한정권의 장벽을 북한 민간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폐쇄성을 반증한다.[12)]

2) 평양의 특정 계급 공간성과 재미기독인의 노스탤지어

재미교포 대북전문가들은 평양을 로얄리티, 혹은 평양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또한 북한을 평가할 때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양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LA의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평양의 포템킨 빌리지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13)]

> "평양은 장애인이 살 수 없는 (자칭) 성스러운 곳(Holy City)이기 때문에 나진·선봉에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들었다. 북한을 바라볼 때 두 잣대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평양은 별천지고 섬과 같이 존재한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한국영화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쓴다거나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것들은 모두 평양이야기다. 그 외 지역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 (LA ○○○ 목사, 인터뷰)

재미교포들은 평양 자체를 북한의 가장 상징적 지명으로 보았고 김일성 동상, 주체탑, 대동강, 고려호텔 등과 같은 평양의 상징물들을 가장 대표적인 경관으로 떠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악의 축'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오지(탄광)나 정치범 수용소를 떠올린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 내재된 판단과 상관없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시도시로서의 평양의 모습이 북한의 대표 상징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미교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상징은 평양(68명, 47.55%), 김일성 동상(27명, 18.88%), 백두산(21명, 14.69%), 금강산(7명, 4.89%), 아오지(4명, 2.80%), 대동강(4명, 2.80%), 주체탑(4명, 2.80%), 김일성 광장(3명, 2.10%), 나진·선봉(2명,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오인혜, 2013).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북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기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북한을 선교지로 간주하는 기독교적 신앙관이 내재되어 있다. 즉 1907년 평양의 대부흥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다.[14)] 평양은 한반도에서 기독교 전파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 중에 하나였으며 당시 외국 언론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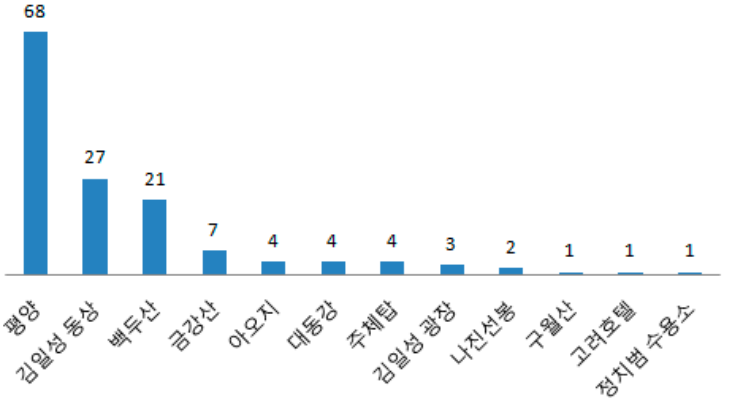

그림 1. 재미교포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상징물과 지명

자료: 오인혜(2013), 94.

그림 2.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출처: 재미교포 사진작가 ○○○ 작품

주: 위 사진의 작가는 신변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하였다.

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의 수도가 되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는 당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장대재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장대재 언덕은 이른바 '혁명적 언어'로 바뀌어 '만수대'로 불리며 20m 높이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11.11.17). '권력의 우상화'라는 관점에서 서구 교회의 기능에 비견되고 있는 170m 높이의 주체사상탑은 과거 교회를 되찾고 다시 십자가를 세우고 싶은 재미교포의 기독교적 열망을 자극한다(Meuser, 2012). 곳곳에 서 있는 김일성 동상들은 실제 세계 10대 종교로 지정된 '수령'에 대한 숭배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15]

또한 북한에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순교자의 자녀들로 태어나면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마을에 모여 살며 주로 기독교인들끼리 점조직을 통해 중매결혼을 하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 제도 하에서 교묘하게 차별받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16] 이러한 지하교인들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재미교포 기독인들의 지원활동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 인식의 한 축에는 한민족 공간으로서의 평양과 열악한 상황을 가리기 위한 전시도시로서의 평양이, 그리고 북한정권의 억압에 대한 염증과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혼재해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배금주의에 물들었다고 비판하고, 탈북자를 면담한 CIA 극동문제전문가였던 헬렌 루이즈 헌터는 북한 사람들이 청교도적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 점이다(Hunter, 1999).

이러한 북한의 폐쇄성과 평양의 이중적 장소성, 기독교적 노스탤지어는 한국(모국)의 기독교 NGO가 형성한 북한에 대한 장소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 인식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일반성과 미국 시민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특수성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3) 재미교포 북한 직접 방문자의 장소감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해 지니게 되는 다양한 주체의 다각적인 시각과 사회·문화·역사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 되는 장소감은 지리학 사조에 따라 변화되고 때론 부활되었다(김용창, 2011). 즉 장소감이란 지리

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과 그 장소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의 세계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지식, 장소와의 일체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소속감과 애착까지 포함하는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Catling, 1986). 본 연구에서의 장소감이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방문객, 관광객 등 장단기 체류자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이미 그 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착 혹은 호기심, 이미지 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북 경험이 있는 재미교포 18명을 대상으로 방문 경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북한 방문 지역은 주로 나진·선봉지역이며 평양, 원산, 사리원, 성천, 회령 그리고 금강산과 백두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지배적인 느낌은 두려움이었으며 입북 시 이미 신변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북한에서의 체류기간은 모두 1~2주일 이내였으며, 방문 목적은 인도적 지원, 관광, 선교 등이었다. 북한에서의 체류기간은 비자를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비싼 물가와 신변의 위험 등으로 장기 체류를 꺼려하였다. 방북 경험을 통해 북한 공산당원들과 신뢰관계를 쌓게 되고 '북한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 느끼기도 한다. 또한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 중에는 중국(동북 3성, 북경 등)에 거주하며 북한에 설립한 유치원이나 공장,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재미교포 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해 재정지원, 단기봉사자 지원활동 등을 제공받는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돌보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일, 북한 엘리트를 북경과 같은 대도시로 불러내어 취업을 시키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에 입국할 때 느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 보다 큰 신념과 민족애가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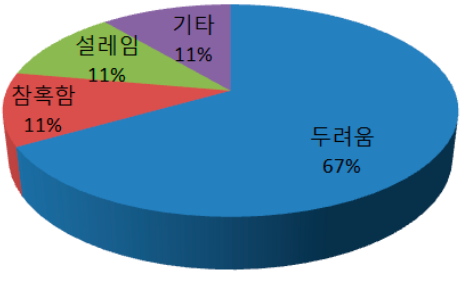

그림 3. 북한 방문시 느낌
자료: 설문조사(유효퍼센트)

5.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의 점화 효과 분석

북한의 혼존 장소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점화시키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 아리랑 공연, 영변 이상 세 테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점화 효과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점화 효과를 밝히기 위해 먼저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지문을 제시하고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물었다. 일정기간(약 77일)이 지난 후 다시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지문을 제시하여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물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호감정도는 긍정적 자극을 주었을 때, 매우 좋다 7, 매우 싫다 1의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이었으며, 부정적 자극을 주었을 때 5.75로 호감의 정도가 긍정적 자극 때 보다 오히려 1.15 증가하였다. 또한 이보다는 미세한 차이지만 방문의사도 긍정적 자극을 주었을 때, 평균 3.73, 부정적 자극을 주었을 때 3.89로 0.16 증가하였다. 연구가설에서는 부정적 면을 강조할 때 호감정도와 방문의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호감정도와 방문의사가 증가한 대상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호감정도와 방문의사가 높아진 대상은 8명으로 이들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

표 6. 점화를 위한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자극

	긍정적 자극	부정적 자극
금강산 관광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노래가 있듯이 금강산(Diamond Mountain)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산중에 하나로서, 4계절 내내 경치가 아름다워 봄에는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초기 적자를 면치 못해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강산의 곳곳에는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 바위에 붉은색 글을 새겨놓는 소위 글발이 새겨져 있어 방문객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합니다. 2008년 7월에는 대한민국국적의 여성(박왕자씨)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북한의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리랑 공연	아리랑 공연은 북한이 자랑하는 대집단체조로서 카드섹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과 움직임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북한의 관광 상품입니다. 그간 900여 회에 걸쳐 상연되었고, 2000년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참가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행사장에 들린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미 국무장관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보다도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평을 듣기도 하고, 카드섹션으로는 규모나 예술적 측면에서 세계최고라는 평판이 있으며, 2007년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북한이 자랑하는 대집단체조로서 북한체제를 응집해서 보여주고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수개월간 동원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해서 각자 병을 갖고 배설물을 모으는 인권유린의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에게는 $100(북한의 한 달 노동자 임금 $30~$40) 이상의 입장료를 받아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을 지니고 있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위험부담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거나 관광객 사망, 우상화 작업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정적 장소성을 강조한 실험지의 내용이 실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복잡한 과정과 비용이 드는 방문의사의 변화보다 호감의 변화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북한의 분단 이전의 장소성을 발굴하고 부각하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부분과 통일 과정에서 실제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방문의사, 지원 행위 등에 대한 변화 메커니즘을 별개로 연구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아리랑 공연의 경우 부정적 자극 이후 호감정도는 실험 가설과 같이 감소했고 방문의사는 이와 달리 약간 증가했다. 방문의사가 다소 증가한 것은 아리랑 공연의 인권 유린 측면을 알게 됐지만 이미 긍정적 실험을 통해 세계적 작품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호감정도의 변화 폭은 금강산의 경우와 같이 방문의사 변화보다 컸다. 점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5명으로 이들은 자극에 따라 긍정적인 의사표현에서 다시 부정적인 쪽으로 이동하였다. 참고로 아리랑 공연에 대해 6명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였고 이러한 낯섦이 민족의 명산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금강산에 비해 점화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대상의 유효표본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사점을 남기고 향후 점화의 강도나 방향을 바꾸어 내적인 호감정도와 직접적 행위인 방문의사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심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표 8과 같다.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의 점화가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부정적 자극으로 점화된 경우 금강산 방문의사와 아리랑 공연 방문의사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금강산 관광

표 7.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점화 결과(대응표본 t-test)

금강산 관광 (긍정적 자극-부정적 자극)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방문의사 변화	−0.16	1.128	0.257	−0.697	0.381	−0.615	18	0.54
호감정도 변화	−1.08	2.539	0.733	−2.697	0.530	−1.478	11	0.16

자료: 실험

표 8. 아리랑 공연에 대한 점화 실험 결과(대응표본 t-test)

아리랑 공연 (긍정적 자극-부정적 자극)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방문의사 변화	−0.16	1.214	0.278	−0.743	0.427	−0.567	18	0.58
호감정도 변화	0.25	1.815	0.524	−0.903	1.403	0.477	11	0.64

자료: 실험

에 대해 점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점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다.

표 9.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태도변화의 상관관계

	금강산 방문의사: 부정 자극
아리랑공연 방문의사: 부정 자극	.522**

Pearson, **P<0.01

전체적으로 실험 집단을 분석해보면 첫째,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할 때 오히려 방문을 원하는 집단(34.78%), 둘째, 점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선호도와 방문의사가 확고한 집단(39.1%), 셋째, 점화에 의해 변화한 집단(21.7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사료된다. 즉 공간에 대한 선호와 방문의사는 미디어나 권력주체가 제시하고 의도하는 대로 점화되는 그룹과 자신의 판단을 지속하는 경우, 의도한 방향과 무관한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영변에 대한 점화 효과

영변은 1980년대 핵관련 시설이 건설되면서 북핵문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와 2003년 합의가 파기에 이르기까지 영변 원자력 연구소는 세계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영변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시설의 낙후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되는 시각으로 영변은 김소월의 고향이자 관서팔경의 하나로 예부터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배경이 되는 약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변에 대한 점화 효과를 밝히기 위해 긍정적 자극으로 김소월의 고향이자 관서팔경의 하나로서 몽환적인 장소성을 강조한 후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물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정적 점화를 위해 영변 핵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고 방문의사와 호감정도를 조사하여 그 변화를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긍정적 자극을 준 실험 결과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꽃' 시의 배경이 되는 영변의 호감정도는 4.5, 핵

시설 지역인 영변은 2.1로 유의확률 0.000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방문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4.2와 2.4로서 유의확률은 0.006으로 핵 시설 지역이라는 강한 부정적 이미지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사설 내용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화되었다. 이것은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상이 직접인 위험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아리랑 공연에 대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의사보다는 호감정도가 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영변에 대한 점화 실험을 통해 동일한 장소도 역사적, 공간적, 상징적 측면에서 어떠한 면을 바라보고, 주체가 어떠한 마음 상태이냐에 따라서 방문의사와 호감정도가 확연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진달래 꽃'의 배경인 영변에 대한 점화효과 차이를 나타냈다. 김소월의 고향으로서의 영변에 대해서는 방문의사와 선호도 모두 여성이 높았지만 부정적 점화 실험 이후에는 여성의 방문의사와 선호도가 모두 남성보다 낮아졌다. 이것은 위험공간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의식이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Deaux, 1976). 뉴욕타임즈의 편집장인 Kim(2012)이 지적한 것과 같이 어떠한 특정 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자는 미디어를 통해 제한된 정보

표 10. 점화를 위한 영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자극

	긍정적 자극	부정적 자극
영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시인 김소월의 고향인 영변의 약산[藥山]은 관서팔경의 하나로 봄에는 대의 돌 사이에 진달래를 비롯한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일품이며, 동대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구룡강(九龍江)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北영변 핵시설 방사능 오염, 美기준 따르면 폐쇄할 정도로 심각" (2011.10.10 동아일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오염 정도가 미국 기준으로는 원전을 폐쇄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유력 전문가의 전언이 나왔다…차 교수는 또 약 10년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 핵시설과 방사선 차단 시스템, 폐기물 처리장소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 이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표 11. 영변에 대한 점화 실험 결과(대응표본 t-test)

영변 (긍정적 자극- 부정적 자극)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방문의사 변화	1.85	2.66	0.59	0.60	3.09	3.10	19	.006
호감정도 변화	2.36	2.43	0.55	1.19	3.54	4.24	18	.000

자료: 실험

표 12. 성별에 따른 영변에 대한 점화 정도의 차이

성별		진달래꽃:호감	핵시설:호감	진달래꽃: 방문의사	핵시설: 방문의사
남성	평균	4.37	2.44	4.11	2.55
	N	8	9	9	9
	표준편차	1.76	1.74	2.20	2.40
여성	평균	4.63	1.81	4.36	2.27
	N	11	11	11	11
	표준편차	1.433	0.87	1.85	2.14
합계	평균	4.52	2.1	4.25	2.4
	N	19	20	20	20
	표준편차	1.54	1.33	1.97	2.21

자료: 실험

를 수용하기 때문에 제시된 사회공간에 대한 실제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제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치 판단이 쉽게 변화하며 보여 지는 사건이나 사고에 따라 이미지가 고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경우도 직접 삶의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북한을 인식할 때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이미지에 영향을 받기 쉽다.

긍정적 점화를 유도하기 위해 김소월의 고향이자 관서팔경의 하나인 영변의 약산을 선택하였지만 이별에 대한 시의 느낌을 장소에 투영하여 영변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실험대상인 재미교포들의 한국 교육 부재 및 미국 교육 경험 등의 영향으로 '관서팔경'이라든지, '진달래 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경관' 등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데 제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별히 핵개발지역이자 방사능 오염지역인 영변을 방문하기 원하는 응답자의 경우 다크투어리즘과 같은 위험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변의 혼존 장소성의 점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은 향후 북한의 보다 다양한 지역의 분단 이전의 장소성을 발굴하고 재구성함으로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차별을 상쇄해 나갈 철학적 단초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은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과거 한민족 공간이라는 특성과 현재 폐쇄적 독재국가로서의 특성이 공존하는 것,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지만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의도적으로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 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 특정 계급공간으로서의 평양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교포에게 북한은 폐쇄적, 억압적 공간이면서 평양 대부흥에 대한 기독교적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애착의 공간이다. 이것은 일면 한국사회의 대북 시선과 동일하지만 북한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요건에 의해 행태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인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 신은미씨의 한국 강연 중 황산테러가 일어난 사건과 이와 관련 LA 공항에서 빚어진 재미교포 간 갈등 현상은 남남갈등이 재미교포 사회에까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제적으로 하나의 상징 공간이 된 '북한'도 다양한 사람들의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바라보는 주관적인 장소이며 재미교포 또한 남한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투영하여 북한을 하나의 주관적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기독교적 선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재미교

포를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장소 체험과 장소성의 점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민족의 명산이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금강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교가 뛰어난 아리랑 공연 그리고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 꽃'시의 배경이 되는 영변이 갖는 긍정적 장소성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장소이지만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인에 의해 총살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강산,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유린으로 체제선전을 하는 아리랑 공연, 핵 시설로 세계에 알려진 영변의 부정적 장소성은 '북한'이라는 상징적 장소가 언론과 미디어, 교육 등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점화 효과를 보이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화 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적 몽환의 장소이자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핵개발 지역인 영변의 극단적 장소성은 부정적 점화 효과가 뚜렷히 나타났다.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은 고립된 타자의 공간이 아닌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함과 동시에 현재 인권유린과 공포정치가 행해지는 독재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북갈등 이전에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북한의 분단 이전의 장소성은 새롭게 부각되어야 하며 통일 과정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장소성 연구는 그동안 단절된 북한 지역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다양한 방향으로 점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것은 북한의 장소성을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굴해 감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사사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의 김용창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덧붙인다.

주

1) 푸코는 1966년 12월 7일과 21일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인 프랑스-퀼튀르(France-Culture)를 통해 「유토피아적 신체」(Le corps utopique)와 「헤테로토피아」(Les hétéropie)라는 제목의 강연을 발표했다. 푸코는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주관적, 추상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2) Foucault(1986)가 '타자적 공간(Of Other Space)'에서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예시와 함께 6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화에서 모든 집단에게 다양한 형태로 수용된다(특권계급공간: 19세기 기숙학교, 헌정된 공간: 군대, 금지된 공간: 신혼여행의 호텔).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동시발생적인 특정 문화를 시간의 관점에서 기능과 의미를 변화시킨다(묘지의 의미변화). 셋째, 모순적이지만 하나의 실제 장소와 여러 가지의 다른 공간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연극무대, 영화관, 정원). 넷째, 헤테로토피아는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시간과 연계되어 있다(박물관, 도서관, 축제의 장소, 박람회장, 여행장소). 다섯째, 개방시스템(침투)과 폐쇄시스템(고립)을 동시에 가정한다(감시에 의한 장소: 교도소, 종교적 정화의 장소: 이슬람 정화장소 Hammam, 자유의 환각에 의한 장소: 매춘굴). 끝으로 헤테로토피아는 'external' 공간과의 연계 기능을 한다.

3) 다면성은 북한이 대화에 임하거나 어떤 의사를 내비치면서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다른 정치적 의도나 술수 및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고 진실 되게 묘사되는 경우를 일면성이라 하였다.

4) Boulding(1956)은 이미지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정의했다. 즉 이미지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고 구성되지만, 결코 고정적이거나 항구 불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박명규와 이상신(2011)은 북한을 적국이미지,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동반국, 동포 6가지 이미지로 나누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자 했다.

5)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인간의 발달 행동이 환경(생활공간, 혹은 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K. Lewin의 독특한 행동의 공식이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은 개체를 둘러싼 환경과 비례(함수)한다."는 장이론을 말한다. $D(B)=F(P\times E)$ (D=발달, B=행동, F=상호작용의 결과, P=한 개체의 특성, E=환경)

6) '동양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용, 불교사원, 붓글씨 쓰는 남자)', '서양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미국 의회 빌딩, 말 위에 앉은 카우보이, 미키 마우스)'를 두 그룹에 제시하

고 이후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물고기보다 앞서 헤엄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원인을 설명하게 했다. 그 결과 점화의 영향으로 동양적 이미지를 본 실험 대상자는 동양식으로, 서양적 이미지를 본 사람은 서양식으로 사고함을 밝혔다. 여기서 동양적 사고란 맥락적, 장의존적 사고(field-dependence)를 말하고, 서양적 사고란 개인의 특성, 성격을 중시하는 사고를 말한다(Witkins, 1969).

7) 물체의 운동을 보여주고 내부적 속성(모양, 무게)에 기인한 것인지, 외부적 속성(중력, 마찰)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게 한 결과 점화의 방향에 따라 서양식 사고(내부적 속성에 원인)와 동양식 사고(외부적 속성)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자가 2007년 금강산 답사를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붉은 색으로 바위에 새겨 놓은 글발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8년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어 신변의 위험성이 내재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9) 실제로 Gartner and Shen(1992)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미디어 보도로 야기된 중국관광 이미지 변화를 연구하였다.

10) 이현군(2012)은『옛 지도를 들고 우리역사의 수도를 걷다』에서는 옛 수도로서의 평양의 의미를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먼저 평양은 현재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서울과 대척점이 되며 주체사상으로 뒤덮인 폐쇄공간이다. 하지만 평양은 고구려 장수왕이 즉위하고 15년 뒤인 427년에 국내성에서 천도해 온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고려의 서경이었다.『해동지도』,「동국여지비고」,「동국여지승람」등의 고지도와 고문서에 등장한 평양과 평양의 대동강, 을밀대, 모란봉, 부벽루 등은 남북으로 나뉘기 전 한반도의 대륙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하며 평양의 의미를 북한의 수도로만 제한하지 말고 지리적 상상력을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류우익(1996)도 한반도를 주변적 혹은 극동(Far East)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벗어나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임을 역설하였다.

11) 캘리포니아의 벨플라워(Bellflower)에 소재한 페니선교회(Penny Mission) 대표의 정기 편지에서 발췌하였다.

12) 기타 의견으로는 북한에서의 신변위험, 정치적 민감성, 한국사회와 교포사회의 무관심, 북한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꼽고 있다.

13) '포템킨 빌리지'는 러시아의 포템킨이라는 장군이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자신이 총괄하던 지역을 시찰을 한다는 것을 알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한데서 기인한 말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고 예카테리나 2세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들었다(한국일보, 2011.12.5). 평양은 한반도의 뿌리 깊은 역사 도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최근 평양건축이 재평가 되고 있지만 위성사진 속에 비춰진 깜깜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할 때 포템킨 빌리지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LA의 통일선교대학을 이끌고 있는 김지성 목사는 평양에 도착해서 거대한 영화세트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LA통일선교대학 참석, 2012.5.10). 또한 평양의 전경 사진에는 깨끗한 아파트 뒤로 낡은 기와집들이 비춰지곤 한다.

14)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 기간 중 시작되었다. 조지 매큔(George McCune)이라는 영국선교사는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로교인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곧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를 비롯한 평양전역으로, 그리도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개성, 인천, 목포 등)으로 마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노블 선교사는 코리아 미션 필드(Korea Mission Field)에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했다. 당시 선교사였던 화이트(Mary Culler White), 맥컬리(Louise Hoard McCully), 하디(Robert A. Hardie), 업아력(A. F. Robb) 등도 평양대부흥 운동에 참여하였다(평양대부흥 홈페이지, www.1907revival.com 참조).

15) 세계의 종교 통계(National & World Religion Statistics)를 게재하고 있는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약 2천만 명의 신도를 가진 세계 10대 종교로 소개하고 있다(http://www.adherents.com).

16) 미주 모퉁이돌 선교회 정기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하였다(http://www.cornerstone.or.kr).

17) 북한에 억류된 재미교포 사례로는 김계용, 이광덕, 김진경, 카렌한, 김동식, 유나리, 로버트박, 에디전, 케네스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재미교포들이 입북 시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조선일보, 1998.8.19., 연합뉴스 1998.9.2., 1999.7.19., 미주 중앙일보 2008.11.30., 중앙일보 2010.1.14., Mediakoreatv 2010.8.31., 크리스천헤럴드 2011.4.28., 미주한인일보 2012.12.12., VOA 2012.12.13.,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참고문헌

구동회 · 심승회 역, 2005, 공간과 장소, 대윤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

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남희 · 전우영, 2014, "도시와 시골 개념의 점화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41-159.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London).

김병로 · 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1), 101-139.

김비아 · 이윤경 · 이재식 · 신현정, 2012, "문화성향 점화와 기억의도가 장면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15-34.

김용창, 2011, "지역연구의 부활시대 공간 역사성의 조사와 기록," Museum Review(서울역사박물관), 2, 34-47.

김정식 · 송유진 · 이성수, 2008, "문화점화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77-193

김정희 · 남기덕 · 박영호 · 송명자 · 송인섭 · 심응철 외, 1997,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김태현 · 남궁곤 · 양유석, 2003,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 (3), 151-174.

김택환,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 한국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계간사상, 9, 145-170.

남성욱 · 김은영 역, 2001, CIA 북한보고서, 한송 (Hunter, H.L., 1999, *Kim Il-Song's North Korea*, Praeger).

류우익, 1996, "통일국토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 구상," 대한지리학회, 31(2), 44-59.

박명규 · 이상신, 2011,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3(1), 129-173.

반현 · 최원석 · 신성혜, 2004,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뉴스미디어의 점화효과–17대 총선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4), 398-443.

백선혜,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경재 · 김묘성 · 김지훈 ·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과 공감능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대회, 1-9.

송현주, 2006,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접근가능성과 적용성 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3), 308-336.

신인영, 2012, "17대 대선기간동안의 BBK스캔들 보도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미디어 점화효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1), 68-97.

신홍임 · 김민식, 2012, "사랑의 점화와 지각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13.

안득기, 2007,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보, 11(1), 1-28.

양계민 ·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97-115.

안영진 역, 2003, 사회공간론, 한울아카데미 (Werlen, Benno, 1987, *Sozialgeographie*, Paul Haupt Berne).

오미영, 2008, "언어 폭력 확산과 미디어–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 이론과 점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05, 54-72.

오인혜, 2013,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 장소심리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연재 ·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윤정원 역, 2012, 이제는 평양건축, 담디(Meuser, P., 2012, *Architekturfuhrer Pjongjang*).

이우승, 2000, "정상회담에 나타난 북한과 김정일 이미지 분석," 저널리즘비평, 31, 26-34.

이우승 · 영 선, 2006, "국내방송의 북한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KBS의 9시 종합뉴스와 남북의 창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1), pp. 258-369.

이윤정 · 전병호, 2007, "점화효과를 적용한 여성 소비자의 주류 광고 수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7(12), 30-40.

이은숙, 2004,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16(1), 183-196.

이은혜 · 한성열, 200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에

따른 남한주민의 사회적 지지 차이," 한국심리학회 발표집, 358-359.

이정만, 2002, "경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삼옥 편,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탐색, 한울아카데미.

이헌경, 201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통일과 평화, 2(1), 145-180.

이현군, 2012, 옛 지도를 들고 우리 역사의 수도를 걷다, 청어람 미디어.

인성기, 2015, "헤테로토피아의 미학–독일어권의 전시예술 박물관 축제 연구–," 독일어문화권연구, 23, 87-119.

전우영, 1998, "북한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 98년도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797-803.

전우영 · 장경호 · 황영선 · 한재순, 2012, "유명인 점화가 도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37-46.

정상준, 2015, "디즈니랜드와 헤테로토피아–다니엘서, 마법의 왕국, 공개화형," 인문논총, 72(1), 227-262.

정우일 · 유영옥, 1993, "통일정책에 있어 상징의 작용에 관한 연구–역대 공화국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27(2), 539-554.

최경은, 2007, 방한 중국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Brockman)

케이듀오, 이혜성 역, 1993, 남녀의 행동연구, 이화문고 (Deaux, K., 1976, *The Behavior of Woman and Me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Purdue University).

허경, 2011, "미셸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3(2), 233-267.

황지환, 2011,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3(2), 3-32.

Boulding, K.E., 1956,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Butz, D., and Eyles, 1997, Reconceptualizing Senses of Place: Social Relations, Ideology and Ecology, *Geografiska Annaler*, 79B(1), 1-25.

Entrikin, J. N.,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Entrikin J. N., 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15-221.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22-27.

Gartner, W., and Shen, J., 1992, The Impact of Tiananmen Square on China's Tourism Imag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4), 47-52.

Hewitt, J. P., 1991,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5th ed.)*, Allyn & Bacon, Boston.

Johnson, P., 2013, The Geographies of Heterotopia, *Geography Compass*, 7(11), 790-803.

Jorgensen, B.S., and Stedman, R.C.,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233-248.

Landau, M.J., Solomon. S., Greenberg, J., Cohen, F., Pyszcynski, T., Arndt, J., *et al.*, 2004, Deliver Us From Evil: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Reminders of 9/11 on Support for President George W. Bush,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9), 1136-1150.

Morris, M. W., and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Murphy, A. B., 1991, Regions as Social Construct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1), 22-35.

Pas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of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mmia*, 164(1), 105-146.

Peng, K., and Knowles, E., 2002, Culture, Ethnicity and the Attribution of Physical Caus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Pred, A., 1983, Structuration and Place,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13, 157-186.

Rubinstein, R.L., and Parmelee, P.A., 1992, Attachment to Place and Representation of the Life Course by the Elderly, *Place Attachment*, ed. Altman, I. & Low, S.M., pp.139-163, Plenum Press, New York.

Sagar, H.A., and Schofield, J.W., 1980, Racial and behav-

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4), 590-598.

Soja, E., 1995, Postmodern Urbanisation: The Six Restructurings of Los Angeles, in Gibson, K. & Watson, S.(eds.) *Postmodern Cities and Spaces*, Basil Blackwell, London, 125-137.

Tuan, Yi-Fu, 1976, Human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 206-276.

교신: 오인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이메일: cani05@snu.ac.kr)

Correspondence: In-Hye Oh,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cani05@snu.ac.kr)

최초투고일 2015. 8. 10
수정일 2015. 8. 23
최종접수일 2015. 8. 27